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9.(월) 배포 즉시

금년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N% 성과급 때문이 아니며,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1.9(월) 서울신문, 제조업 'N% 성과급' 갈등...근로손실 일수 45% 늘었다

동아일보, 車-조선 노조도 N% 성과급 요구 줄파업..."근로손실일수 1.5배로 늘어"

2. 설명 내용

□ **9월 말** 기준 **근로손실일수**는 **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.3% 증가***했으나 이는 **특정 대기업(1개사)**의 **통상적인 임단협** 관련 **노사분규**가 **원인**임

* (근로손실일수, 일) ('23) 254,197 → ('24) 296,111 → ('25) 336,800 → ('26) 489,190

○ **특정 대기업 1개 사(292,500일, 59.8%)의 근로손실일수**가 **전체 근로손실일수**(489,190일)의 **약 60%에 해당**되고

○ **동 대기업(1개 사) 파업**의 **주요 요인**은 **상여금 인상, 정년연장, 해고자** 등 관련 **노사 간 이견**이었음

○ 올해 동 대기업(1개 사) **근로손실일수 증가분**(251,500일)*을 **제외**하는 경우 **전체 근로손실일수(237,690일)**는 **전년 대비 29.4% 감소**

* 동 대기업 근로손실일수: '25년 41,000일 → '26년 292,500일

□ **일부 기업의 노동조합**이 임단협 **교섭 과정**에서 **다양한 요구사항 중 하나**로 **‘성과급 N% 요구’**를 한 경우도 있으나

○ **‘성과급 N% 요구’**가 이슈였던 **반도체 대기업**은 **파업 없이 타결**하였고, **타 사업장**은 노사협의를 통해 **통상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성과급을 타결**한 바 있어

○ **‘성과급 N% 요구’**가 **‘근로손실일수 증가’**로 **직접 이어진다**고 **보기는 어려움**

□ 한편, **9월말** 기준 **노사분규 건수**는 **지난해 같은 기간**보다 **11.1% 감소**하는 등 **현장의 노사관계**는 **비교적 안정적인 흐름**을 유지하고 있으며

* (노사분규, 건) (’23) 182 → (’24) 97 → (’25) 99 → (’26) 88

○ **전·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**이 큰 **완성차**(5개사 전체)와 **조선사**(7개 사 중 6개 사)의 **노사 교섭**이 **통상적·합리적 수준**으로 **타결**되었음

□ **정부**는 올해 **노사관계 안정화 기조**가 **지속되고 노사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·지원 노력**을 **적극적·지속적**으로 **이어가겠음**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재훈 (044-202-7620)
		담당자	사무관	한형진 (044-202-762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